



‘청정심이 곧 부처’ 맑은 마음 갖는 공부하세요

조계종 원로의원·송광사 조실 법흥 스님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던 것이 두 번, 세 번 하려면 두려울 때가 있다. 반복되는 경험 속에 얻어지는 익숙함과는 다른 무엇. 그것마저 극복했을 때가 자신을 향상시키고 진일보 하게 되는 때이다. 또, 겹겹이 쌓여가던 속박에서 벗어난 작은 해탈이라.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는 길도 그랬다. 법정 스님의 다비식이 있던 3월 13일, 나그네는 밤길을 달려 송광사에 갔다. 그로부터 10여 일이 지난 어느 날, 같은 시각에 다시 송광사를 찾았다.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기 위해 도랑을 가득 메웠던 대웅은 간 곳 없이 절집은 고요했다. 미미하던 도랑 한 칸의 매화나무 가지에는 매화 봉오리가 잔뜩 물음라 있었다. 매화꽃 또한 10여 일전 송광사를 장엄했던 대웅 같은 봄 손님이다.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는 변함 없었다.

송광사 방우산방(放牛山房)에서 법흥 스님을 만났다. 방우산방은 법흥 스님의 은사 조지훈 선생이 말년을 보냈던 오대산 토굴 '방우산장'에서 따온 말이다. 조지훈 선생은 방우산장에서 지내며 오대산 스님들에게 의견을 강의했다.

법흥 스님의 기억력은 탁월하다. 경전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의 이력, 송광사 역사 등을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이들 모두 스님을 '이 시대의 아난'이라고 칭송한다. '아난'을 모르는 이도 "스님은 컴퓨터세요, 녹음기가 따로 없네요"라며 탄복하는 분이 법흥 스님이다.

법정 스님 입적으로 효봉 스님의 상좌 중에는 법흥 스님만이 남았다. 말상좌로 조계총림 방장을 지낸 구산 스님(1909~1983)을 비롯해 환속한 고은 시인, 김원일 법사 등이 효봉 스님 상좌였다.

근현대 선지식의 한 분인 효봉 스님(1888~1966)은 '절구통 수좌'라 불렸다. 법관 출신 출가자로 유명했던 스님은 와세다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생활을 하다 첫 사형선고를 내린 후 생사를 고뇌하다가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했다. 출가 후 치열한 구도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효봉 스님은 1937년 송광사 선방 삼일암에서 조실로 10년을, 1946년부터 5년간은 해인사 가야총림 방장, 1962년 통합종단 출범 후 초대종정 등을 역임했다.

법정·법흥 스님은 사형사제간이다. 법흥 스님은 3월 13일 사형의 다비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송광사 선덕 현호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원로의원 월탄 스님, 선원대표 혜국 스님 등과 거화봉을 들었다. 이후 17일 법정 스님의 초재에서 법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뜨거운 행제애를 보여줬다.

"법정 사형님,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전에 찾아보려 했으나 생전에는 못 뵈고 추모사를 하게 돼 송구스럽습니다. 1960년 팔공산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이 '법정, 법흥 들어와라' 하시며 '화두를 어떻게 드느냐'고 했을 때 몸 둘 바를 모르고 떨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1975년 정부기관서 사형님의 전화를 도청하고 편지를 뜯어봐 법정 사형

동화사 금당에 왔을 때 만났어."

법흥 스님이 회상하는 법정 스님은 자기 하고 싶은 공부만 했던, 알뜰도록 실속 있게 살았던 '사형'이었다.

"법정 스님과 1961년 해인사 선방에서 같이 지냈어. 그때 법정 스님이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 번역본을 냈고, 해인사에서 보니 스님은 <신동아> <사상계> 같은 잡지를 보고 있었어. 스님은 주지·삼직(총무·교무·재무 등 소임)을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지. 내가 동화사에서 교무 소임 맡 때 법정 스님에게 '같이 지내자'고 하니, 스님이 나보고 '스님 공부나 하지 뭐하려고 교무보고 있소'라고 묻더군. 하하하."

법흥 스님이 동화사 교무 소임을 살 때는 사찰 재산이 처음 등록되던 때였다. 스님은 동화사 70여 말

탁월한 기억력으로 경전 줄줄... 이 시대의 아난

사찰 재산 첫 등록 때 촛대까지 손으로 기재

사의 촛대, 향로 하나까지도 일일이 만년필로 옮기며 동화사 말사의 재산을 기재한 장본인이다. 손이 부르르게 펜을 잡고 일했던 자신과 달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형이 야속하기도 했을 법한데 두 스님의 사형사제간은 돈독했다. 군사정권 때 비판 글을 잡지에 게재했던 법정 스님은 중앙정보부 감

찰이 도를 넘자 송광사로 내려왔다. 원고료 80만 원을 들고 불일암 불사를 시작했던 사형을 도운 것은 당시 송광사 주지를 살던 법흥 스님이었다.

"1980년 10·27 법안 이후 이를 수습하려고 꾸려진 비상중앙총회에 법정 스님과 함께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도 2~3달하고 그만뒀을 만큼 엄매는 것을 싫어했지."

스님은 나그네에게 "요즘 법정 스님 책이 15만원이나 한다며?"라고 물었다. 나그네도 우스개로 "스님, 사형스님 책이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라고 반문했다.

"아니, 하나도 없어. 몇 권 있던 것도 얼마 전에 청와대(박재완 수석비서관에서 찾갈래 다 보내줬어.)"

법흥 스님 방에는 책이 가득하다. 무엇이든 주기 좋아하는 스님이 건네는 선물 가운데 책은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다. 2009년 스님은 소장해 온 350여 권의 도서를 고려대에 기증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법흥 스님은...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했다. 1958년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통도사 해인사 상원사 대승사 미래사 망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한 법흥 스님은 1974~1977년 송광사 주지를 지냈다. 1980년 불교정화총회의 사무총장, 제4·5·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2008년 대중사에 추대됐다. 저서로 <선의 세계> <계울강요>가 있다.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륵대(운장대)

법륵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륵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륵대에 복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륵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륵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복장할 수 있어 사찰 경제가 걱정없는 천불전이자 년년월월 장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륵대입니다.

법륵대 예약 대축제

전신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연중4회 정월, 봉축, 벽중, 동지로 나누어 지낼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산)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